

## 일 도시 간호대학생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강 혜 영\*\* · 한 석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10년에는 12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 2.5%를 점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중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수집단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 약 56만 명과, 약 11%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 14만여 명과 그 자녀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과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0).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은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와 2003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본격화 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다문화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고 정부도 2006년에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다문화사회란 단지 다양한 소수집단이 동거한다는

차원을 넘어 편견과 차별 그리고 태도나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그간의 단일민족이란 정체성도 고집하기가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는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및 북한사람에 대해 부정적이고(Kim, 2007), 청소년들도 단일민족의식이 강하여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친밀감이 낮고 감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며(Yoo, 2009), 외국인에 대해서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보이면서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종과 민족적 이질성 외에도 사회 계층적 이질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도 하였다(Yoon & Kim, 201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집단에 대한 Kim (2004)의 연구에서 장애인보다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다 하였다.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과(Yang, 2008) 인종과 민족, 사회계층 간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편견(Jeong & Kim, 2012)이 있다 하였고, 대학생들은 학년이 낮고 보수적 가치관을 지니며 외국방문경험이 없고, 국외 외국인 친구가 없는 자에게서 사

\* 본 연구는 2012년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hansy4ever@seoyeong.ac.kr)

투고일: 2013년 3월 6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12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an, Seok Young

Department of Nursing, Seoyeong University,

1 Seokang-Ro, Buk-gu, Gwangju 500-742, Korea

Tel: 82-62-520-5332 Fax: 82-62-520-5359 E-mail: hansy4ever@seoyeong.ac.kr

회적 거리감이 더 크다 하였다(In, 2009). 그밖에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문화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각 집단마다 고정관념, 감정 및 호감도에 따라 다르고(Park, S. H., 201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들에 대한 감정이나 사회적 거리감이 별로 높진 않지만, 연령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들과의 접촉만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어렵다 하였다(Jeon & Jun, 2010).

이상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다양한 소수집단과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사회에 깊이 들어왔으나,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편견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잘 나타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하고 성별이나 연령별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Oh, K. S., 2011).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은 물론(Foster, 2008), 원만하고 능동적인 태도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In, 2009) 소수집단이 우리사회에 심리, 사회 및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지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Kim & Lee, 2010) 아직은 이에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학생은 다양한 실무현장 즉 보건진료소의 주된 모자보건대상자가 결혼이민자 가족이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의 제3순위 대상자가 결혼이민자가정이며, 보건소 내에서도 영양플러스사업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건강검진 등에서 이미 이들과 접촉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간호사들이 이들을 위한 건강상담과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수집단에 관련하여 새터민에 대한 연구(Shin et al., 2011),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Ahn, 2008; Kim & Moon, 2011) 및 정신사회적 건강(Ahn, Jeon, Whang, Kim, & Youn, 2010)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들과 접촉하는 간호사에 대한 연구로는 보건진료원의 문화적 역량과(Lee, Kim, & Lee, 2012)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에(Oh, W. O., 2011) 대한 연구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4월 현재 3만 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임을

감안하여 2011년 현재 전국 초등교원 양성대학과 국·사립 사범대학을 포함하여 30개교에서 다문화교육관련 과목이 정규교과로 운영되고 있으나(Park, Y. S., 2011), 보건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이나 간호대학 내 다문화관련 교육과정개정활동 등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의식이 뿌리깊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짧은 기간 내에 변화되기도 어렵다(Parrillo & Donoghue, 2005).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현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미래 리더가 될 대학생들이 소수집단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적 가치관정립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In, 2009). 이미 소수집단들을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을 감안해볼 때, 이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간호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절실하며, 이를 근거로 미래 실무현장에서 타문화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리라(Calvillo et al., 2009)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소수집단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 간호대학생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신체적 및 대인적 거리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용어 정의

- 1) 소수집단(minority groups)  
소수집단이란 소수자(minority)로 구성된 집단으로, 소수자란 단지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 즉 성, 나이, 인종, 사상, 경제력 등의

측면에서 지배적이고 주류라고 생각되는 집단들의 기준이나 가치와 달라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Dworkin과 Dworkin (1999)에 의하면 소수자는 식별가능성과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 그리고 집단의 식 또는 소속의식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Park, 2010에서 인용됨). 식별가능성이란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권력의 열세란 정치적 권력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권력과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뒤쳐짐을 의미한다. 차별적 대우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집단 또는 소속 의식이란 같은 성원이기에 공유하게 되는 생각으로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면 연대의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집단으로 구별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유학생 및 북한으로부터 이탈해온 새터민을 의미한다.

## 2)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사회적 거리감이란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편견 정도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 간에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정도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얼마나 친근할 수 있는지를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Yoo, 2009). 본 연구에서는 Yoo (2009)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감은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인 '신체적 거리감'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친근성인 '대인적 거리감'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인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유학생 및 북한에서 이탈해온 새터민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한 1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3년제 6개교 중 1개교, 4년제 6개교 중 1개교를 편의 추출한 4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ANOVA 분석을 위한 산출방법인 G 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표본수는 280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431부 설문지 중 미완성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40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응답률은 95%였다.

### 3. 연구 도구

사회적 거리감은 Yoo (2009)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12문항의 5점 척도를 대학생에게 맞은 용어를 사용한 4점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Yoo (2009)의 사회적 거리감은 신체적 교섭을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적 거리감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친근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인적 거리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적 거리감은 '나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과 진심으로 개인적인 친구로 지낼 수 있다'를 비롯한 6개 문항을 포함하며, 대인적 거리감은 '나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다니는 모임에 같이 가입하고 싶다'를 비롯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 (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사회적 거리감은 Cronbach's  $\alpha = .84$ , 신체적 거리감은  $\alpha = .77$ , 그리고 대인적 거리감은  $\alpha = .74$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  $\alpha = .94$ , 신체적 거리감  $\alpha = .89$ , 그리고 대인적 거리감은  $\alpha = .86$ 이었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각 대학에서 기말시험이 끝나는 날에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모든 과정은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조사과정을 충분한 설명하고 자원하여 참여할 것과 조사에 대한 철회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후 연구자의 설명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서명토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권리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동의서와 본 조사 내용은 별도로 수거하였다.

### 5.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은 백분율과 평균과 표준편차로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종교 그리고 외국방문경험과 방문한 대륙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서 남성이 9.8%로 간호대학생 약 10명 중 한 명은 남학생이었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군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8.2%였으며 종교를 가진 자 중에서는 개신

교가 30.3%, 가톨릭이 12.7%순이었다. 외국 방문을 경험하지 않은 군은 절반이 넘는 62.8%였으며, 방문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는 관광이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30.8%였고 그 다음이 유학이나 연수가 8.8%순이었다. 방문한 나라를 대륙별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 등의 아시아가 35.0%였고, 다음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주로 3.7%에 불과하였다(Table 1).

### 2. 대상자의 다문화관련 특성

대상자의 다문화관련 특성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친구가 있는지 여부와 친구 수, 친구로 지내온 기간과 만나는 정도,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한 봉사활동은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대상자 중 외국인 친구가 없는 자가 69.7%로 약 2/3를 차지하였고, 친구가 있는 자 중에서 한두 명인 경우가 25.4%였다. 친구로 사귀는 기간은 일 년 이내가 14.7%였고 2년 이상이 11.7%였으며, 친구가 있다 해도 이름만 알거나 인사정도만 하는 경우가 16.1%였고, 매주 한 번 이상 만나며 지내는 정도도 3.2%에 불과하였다. 다문화관련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상자는 19.9%로, 한번 또는 두 번 경험한 자가 17.2%, 세 번 이상도 2.7%에 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0 ( 9.8)
	Female	369 (90.2)
Religion	None	197 (48.2)
	Protestant	124 (30.3)
	Catholic	52 (12.7)
	Buddhism	33 ( 8.1)
	Won-Buddhism	3 ( 0.7)
Purpose of abroad tour/visit†	None	257 (62.8)
	Sightseeing/visit friends	126 (30.8)
	Study/training	36 ( 8.8)
	Joining international camp	17 ( 4.2)
	Work/immigration	3 ( 0.7)
Visited continent†	None	257 (62.8)
	Asia(Japan, China, etc)	143 (35.0)
	North America(USA, Canada, etc)	15 ( 3.7)
	Europe(UK, Germany, etc)	7 ( 1.7)
	Oceania(Australia, New Zealand)	5 ( 1.2)
	Africa(Keyna, South Africa, etc)	3 ( 0.7)
	South America(Brazil, Chille, etc)	1 ( 0.2)

note: numbers are excluded no responses † multiple responses

과하였다(Table 2).

### 3.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평균 1.90±0.57점(범위: 1~4점)이었고 하위 영역인 신체적 거리감은 2.06±0.58점(범위: 1~4점), 대인적 거리감은 1.98±0.56점(범위: 1~4점)이었다(Table 3).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사회적 거리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종교와 외국방문 경험 및 아시아여행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무종교인 경우 사회적 거리감은 2.07±0.64점으로 종교를 가진 경우인 1.90±0.47점 보다 높았고( $t=3.10, p=.002$ ), 하부영역인 신체적 거리감( $t=3.03, p=.003$ )이나 대인적 거리감( $t=2.99, p=.003$ )에서도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신교인 경우가 1.87±0.48점으로 무종교인 경우에 비해 낮았으며( $F=4.99, p=.002$ ), 하부영역인 신체적 거리감( $F=4.49, p=.002$ )이나 대인적 거리감( $F=4.53,$

Table 2. Multicultur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o. of foreign friends(person)	None	285 (69.7)
	1-2	104 (25.4)
	3-4	12 ( 2.9)
	More than 5	8 ( 2.0)
	Duration for friendship(mon)	Have no foreign friends
Less than 1		18 ( 4.4)
1-3		24 ( 5.9)
4-12		18 ( 4.4)
13-24		16 ( 3.9)
More than 24		47 (11.7)
No. of meeting for acquaintance	Have no foreign friends	286 (69.7)
	Mere acquaintance	27 ( 6.6)
	Nodding acquaintance	39 ( 9.5)
	Once or twice annually	20 ( 4.9)
	Three times or more annually	14 ( 3.6)
	Once or twice monthly	10 ( 2.5)
	Once or twice weekly	7 ( 1.7)
	Daily	6 ( 1.5)
	Multicultural volunteer activity	None
Once or twice		70 (17.2)
Three to five times		8 ( 2.0)
Six to nine times		1 ( .2)
More than 10 times		2 ( .5)

note: numbers are excluded no responses

Table 3. Social Distance of the Subjects

Domain	M±SD	Actual Range
Social Distance (12 items)	1.90±0.57	1-4
Physical Distance(6 items)	2.06±0.58	1-4
Personal Distance(6 items)	1.98±0.56	1-4

$p=.004$ )에서도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을 방문한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도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8\pm 0.56$ 점, 없는 경우에는  $2.04\pm 0.56$ 점으로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t=-2.65$ ,  $p=.008$ ), 신체적 거리감( $t=-2.70$ ,  $p=.007$ )이나 대인적 거리감( $t=-2.45$ ,  $p=.015$ )에서도 각각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시아 방문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2.03\pm 0.56$ 점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인  $1.89\pm 0.56$ 점보다 높았으며( $t=-2.38$ ,  $p=.018$ ) 두 하부영역인 신체적 거리감( $t=-2.38$ ,  $p=.018$ ) 및 대인적 거리감( $t=-2.25$ ,  $p=.025$ )에서도 동일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 5. 대상자의 다문화관련 특성별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친구 유무, 외국인 친구의 수, 그리고 외국인 친구와 사귄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친구가 없는 군이  $2.04\pm 0.57$ 점으로 있는 군의  $1.85\pm 0.52$ 점보다 높았으며( $t=3.13$ ,  $p=.002$ ), 하위영역인 신체적 거리감( $t=3.02$ ,  $p=.003$ )에서나 대인적 거리감( $t=3.08$ ,  $p=.002$ )에서도 각각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외국인 친구 수에 따라서는 한두 명 있는 군이  $1.85\pm 0.52$ 점, 세 명 이상인

군이  $1.85\pm 0.51$ 점으로 친구가 없는 군의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으며( $F=4.92$ ,  $p=.008$ ), 신체적 거리감( $F=4.60$ ,  $p=.011$ )과 대인적 거리감( $F=4.72$ ,  $p=.009$ )에서도 역시 같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친구와의 사귄 기간에 따라서는 3개월 미만 군이  $2.02\pm 0.57$ 점으로 1년 미만 군의  $1.73\pm 0.41$ 점과 1년 이상 군의  $1.86\pm 0.50$ 점 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사귄 기간이 짧은 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으며( $F=3.92$ ,  $p=.021$ ), 외국인 친구에서와는 달리, 하부영역인 신체적 거리감은 3개월 미만 군이 1년 이상 군보다( $F=3.76$ ,  $p=.024$ ), 그리고 대인적 거리감은 3개월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F=3.70$ ,  $p=.026$ ) 높았다(Table 5).

## IV. 논 의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우리사회는 이들 소수집단을 향한 다양한 편견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등을 겪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국내 연구도 비교적 최근해야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간 국내 사전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사용해진 사회적 거리감 척도와, 이들 연구에서 다뤄진

Table 4.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ocial Distance					
			Physical Distance		Personal Distance		Total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0	1.81±0.53	-1.06	1.95±0.51	-1.26	1.88±0.50	-1.20
	Female	369	1.91±0.58	(.290)	2.07±0.59	(.207)	1.99±0.57	(.233)
Religion	Have not	197	1.99±0.66	3.03	2.15±0.65	2.99	2.07±0.64	3.10
	Have	212	1.82±0.46	(.003)	1.97±0.50	(.003)	1.90±0.47	(.002)
Kinds of religion	Have not <sup>a</sup>	197	1.99±0.66	4.49	2.15±0.65	4.53	2.07±0.64	4.99
	Protestant <sup>b</sup>	124	1.78±0.47	(.002)	1.95±0.52	(.004)	1.87±0.48	(.002)
	Catholic <sup>c</sup>	52	1.78±0.46		1.91±0.53		1.84±0.48	
	Others (B/Won-B) <sup>d</sup>	36	2.02±0.40		2.15±0.38		2.09±0.37	
				a)b		a)b		a)b
Abroad tour experience	Have	152	1.80±0.55	-2.70	1.96±0.60	-2.45	1.88±0.56	-2.65
	Have not	257	1.96±0.58	(.007)	2.11±0.57	(.015)	2.04±0.56	(.008)
Asian tour experience	Have	143	1.81±0.55	-2.38	1.97±0.59	-2.25	1.89±0.56	-2.38
	Have not	266	1.95±0.58	(.018)	2.10±0.57	(.025)	2.03±0.56	(.018)

note: B = Buddhism

소수집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Yoo (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을 인간 간에 신체적 접촉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친근성 정도로 된 두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총화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긴 하나 일반적 행동의사와 가족관계 행동의사로(Kang & Kwak, 2012) 본 척도가 있다. 또한 Parrillo와 Donoghue (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 척도 7개 항목별로(Jeon & Jun, 2010) 1-7점으로 채점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각 항목의 의미를 살펴 각각 평정척도로 변용시키기도 하였고(In, 2009), 두 가지 분석을 동시에 다 활용하기도 하였다(Lee, Choi, & Choi, 2010; Lim & Kim, 2011). 또한 척도 내 항목 수도 감소(Jeong & Kim, 2012; Park, S. H., 2011) 또는 증가(Lim & Kim, 2011) 시키거나 한 개의 항목만을(Kim, 2007) 선택하기도 하였고, 채점 방식에서도 모든 항목을 역산하여 사회적 친밀감으로(Yoon & Kim, 2010)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그간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각 연구들마다 척도의 항목선택이나 배점 방식이 각기 목적에 따라 달리 측정해왔음을 알 수 있

다.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대상 역시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유학생 및 새터민을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보았으나, 외국인 또는 소수집단이란 이름으로 더 많은 집단을 포함시키기도 하고(Kim, 2004; Kim, 2007) 소수집단 중 몇 개만을(Park, S. H., 2011), 또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나(Jeon & Jun, 2010; Kim & Lee, 2010)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하나의 집단만을 대상으로(Yoo, 2009)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Kim, Kim, & Han, 2009)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거리감이나 결혼이주여성을(Jung, 2010)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 간 감수성과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와 똑같은 척도, 또는 소수집단의 범위는 아니어도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소수집단의 사회적 거리감을 비롯한 관련 태도와 정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4점 만점에 1.90점이었다. 이는 5점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남지역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이 2.51점(Jeon & Jun, 2010)이

Table 5.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Multicultur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ocial Distance					
			Physical Distance		Personal Distance		Total	
			M±SD	t/F (p)	M±SD	t/F (p)	M±SD	t/F (p)
Foreign friends	Not have	285	1.96±0.59	3.02	2.11±0.59	3.08	2.04±0.57	3.13
	Have	124	1.78±0.52	(.003)	1.92±0.54	(.002)	1.85±0.51	(.002)
No. of foreign friends	Not have <sup>a</sup>	285	1.96±0.59	4.60	2.11±0.59	4.72	2.04±0.57	4.92
	One or two <sup>b</sup>	104	1.78±0.52	(.011)	1.93±0.54	(.009)	1.85±0.52	(.008)
	≥ three <sup>c</sup>	20	1.73±0.48		1.91±0.56		1.85±0.51	
				a)b		a)b		a)b
Duration for friendship	≤ 3 mon <sup>a</sup>	42	1.94±0.59	3.76	2.09±0.59	3.70	2.02±0.57	3.92
	≤ 1 year <sup>b</sup>	18	1.68±0.47	(.024)	1.79±0.39	(.026)	1.73±0.41	(.021)
	≥ 1 year <sup>c</sup>	63	1.78±0.49		1.95±0.54		1.86±0.50	
				a)c		a)b		a)b,c
No. of meetings for acquaintance	Mere <sup>a</sup>	27	1.73±0.60	1.09	1.83±0.64	1.61	1.78±0.61	1.41
	Nodding <sup>b</sup>	39	1.87±0.46	(.355)	2.05±0.48	(.190)	1.96±0.45	(.244)
	1-2 times <sup>c</sup>	20	1.80±0.45		1.96±0.46		1.88±0.44	
	≥ 4 times <sup>d</sup>	37	1.67±0.53		1.80±0.56		1.73±0.53	
Multicultural volunteer activity	Not any <sup>a</sup>	326	1.93±0.59	2.58	2.08±0.59	1.60	2.01±0.57	2.15
	Once or twice <sup>b</sup>	70	1.80±0.50	(.077)	1.99±0.57	(.204)	1.90±0.51	(.118)
	≥ 3 times <sup>c</sup>	11	1.67±0.54		1.82±0.57		1.74±0.53	

었으며, 광주지역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2.72점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2.38점(Park, S. H., 2011)이었다는 보고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해 2.24점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2.75점(Jeong & Kim, 2012)이었던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대학생들은 소수집단 중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감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중간 내지는 약간 높은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2.80점(Yoo, 2009)인 결과와, 대학생이 백인이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낮았으나 소수집단 중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인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보다 높았다는 보고와도(Lim & Kim, 2011) 상통한다. 이는 각 연구마다 척도의 적용이나 채점방식이 다소 다르다 해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동남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하면 전체 85% 이상(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0)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국내 다양한 소수집단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보다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는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그리고 북한사람에게 보다 부정적이며(Kim, 2007),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인지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3D업종에 종사하여 경제발전이 일조한다는 평가는 하나 여전히 타 인종,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며(Kim, 2004), 인종적, 민족적 이질성 뿐 아니라 사회 계층적 이질성에 대한 편견도(Jeong & Kim, 2012)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겠다.

사회적 거리감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영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관련 집단을 포함한 여러 인종과(In, 2009), 결혼이민자(Jeon & Jun, 2010)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국내 보고(Yoo, 2009)와 미국에서 2004년 30개 인종에 대한 전국대학생조사(Parrillo & Donoghue, 2005)에서는 남학생이 더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감과 유사한 개념들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느꼈으며(Kim,

2004), 다문화수용성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여대생에서 더 높았고(Park & Won, 2010), 문화공감능력 역시 여학생에서 높았다는(Jeong & Kim, 2012) 보고들을 통해 대체로 여성이 보다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 이탈해온 새터민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다는 보고(Kim, 2007)도 있는데, 이는 상기한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감척도 항목 중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항목 하나 만을 측정함으로써 한국인의 혈통주의가 두드러지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거리감을 비롯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감정, 편견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이나 문화공감능력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나 인지에 성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도 있는 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포용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국내연구가 비교적 초기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은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우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군이 종교를 가진 군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으며 하위 영역인 신체적·대인적 거리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종교의 종류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독교 군이 무종교 군보다 전체 사회적 거리감과 두 하위 영역인 신체적·대인적 거리감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영남지역 대학생들에서 무종교 군의 사회적 거리감이 종교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과(Jeon & Jun, 2010), 대학생들 중 기독교인이 새터민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Kim, 2004) 보고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서 보다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간 종교기관들이 다양한 소수집단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외국 방문경험이 없는 군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군보다 높았으며, 두 하위영역인 신체적·대인적 거리감에서는 물론 아시아 방문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영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외국 방문경험이 없는 자에게서 높았고(In, 2009) 보건진료원의 해외체류경험이 문화역량을 높였으며(Lee et al., 2012) 간호대학생의 해외여행과 해외생활경험이 문화적 민감성을 높였다는(Oh, W. O., 2011) 보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 상기한 특성을 나타내는 소수집단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경험·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의사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Kang & Kwak, 2012), 해외방문경험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간접효과를 나타냈고(Park & Won, 2010), 해외여행경험이 대학생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참여의지와 문화교류역량을 높였다는 보고(Jeong & Kim, 2012)들과도 상통한다. 이상에서 보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여행이나 단순한 외국 방문도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국내 소수집단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관련 배경에 따라서는 외국인 친구가 없고 그들과 사귄 기간이 짧은 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았다. 이는 외국인과 교류경험이 있고 외국인 친구가 있는 군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이 높았고(Oh, W. O., 2011),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와의 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간접 효과를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을 감소시켰다는(Kim, 2004)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친구와 친구로 지낸 기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인 반면, 사귄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학 기숙사와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 단지 자주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없었다는 보고(Jeon & Jun, 2010)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었으며(Kim, 2004), 봉사활동경험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Park & Won, 2010)와 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외국인 친구가 있고 사귄 기간이 길며 이들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반면, 외국인 친구와 친

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만난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요인도 작용했으리라 보여지나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그밖에 다문화적 변수로는 정치성향과 계층의식 및 자민족 중심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관,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태도, 공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정서 또는 감정, 다문화 인식과 문화역량, 그리고 문화적 지식과 다문화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의 진보적인 정치성향은 문화적 수용성을 높였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성에 긍정적이었다(Yoon & Kim, 2010). 대학생들은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며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자가 권력가치 지향과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군보다 인종에 대한 거리감이 낮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보다 개방적이었고(In, 2009), 사회적 거리감은 고정관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낮아졌다(Jeon & Jun, 2010).

다문화인식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함께 본 외국인 이미지와 한국인 인정조건에서 대학생들은 서양의 백인 선호경향이 있긴 하나 혈연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데 더 중시하였다(Lim & Kim, 2011).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도는 공감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랐으며 다문화지식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Oh, W. O., 2011), 보건진료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수용성과 지식에 영향을 주었다(Lee et al., 2012). 독일, 벨기에, 영국의 세 국가 청소년들은 접촉이 편견을 줄일 뿐 아니라 편견 역시 접촉을 감소시킨다면 소수와 다수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접촉효과는 외부집단과의 접촉이 그들 집단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때 가장 크다 하였고(Binder et al., 2009),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해도 사회적 거리감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미국 백인 인종에 대한 우위성과 유럽 백인의 상위화와 아시아인의 하위화 현상은 인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하겠다(Parrillo & Donoghue, 2005).

이상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소수집단에 따라 그 정도도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요인 외에도 사회적 가치관과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태도, 정서 또는 감정과 다문화 인식과 역량, 그리고 문화적 지식과 교육 등도 이에 사회적 거리감의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미래 건전한 다문화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물론(Foster, 2008) 대학생의 다문화적 교육과 관련 경험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In, 2009; Lim & Kim, 2011) 지역사회 다문화관련기관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대학 내 유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Jeon & Jun, 2010)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소수집단을 접촉하는 보건진료원을(Lee et al., 2012) 비롯한 보건간호사와 보건교사, 병원간호사 및 산업간호사 등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고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한 문화역량 교육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관련 교육(Oh, W. O., 2011) 역시 요구되며, 인간의 문화와 가치,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위를 인지할 수 있고, 타문화에서 온 개개인을 사정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교차문화적 변동을 사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역량 교육과정 졸업간호사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 결과(Calvillo et al., 2009)를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그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예비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중간 이하였지만 대학생은 미래 우리사회 리더이며 특히 간호대학생은 병원과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건강문제를 접촉하게 될 예비 전문 간호 인력이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 및 인식은 물론 문화역량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 청소년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과 해외동포 역시 계속 증가해갈 것이기에 이들과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연구는 물론, 사회적 거리감 측정 도구와

채점방식도 각기 다른 상황이었기에 이를 포함한 소수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개발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좀 더 넓은 범위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화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과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Ahn, O. H, Jeon, M. S, Whang, Y. Y., Kim, K. A., & Youn, M. S. (2010).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5(2), 134-150.
- Ahn, Y. H. (2008).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18-26.
- Binder, J., Brown, R., Zagefka, H., Funke, F., Kessler, T., & Mummendey, A. (2009). Does contact reduce prejudice or does prejudice reduce contact? A longitudinal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among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843-856.
- Calvillo, E., Clark, L., Ballantyne, J. E., Pacquiao, D., Purnell, L. D., & Villarruel, A. M. (2009). Cultural competency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2), 1347-1455.
- Foster, S. (2008). Medi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 *Report on Multicultural Policy Foru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55-76.
- In, T. J. (2009). The study on conscious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city and kyungsangnamdo toward ethno-racial distances and cultural

- d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3(2), 339-369.
- Jeon, Y. J., & Jun, Y. H. (2010). Influences of stereotypes and emotion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on social distan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1), 1-13.
- Jeong, J. E., & Kim, Y. H. (2012). Analyzing teachers' performance in managing project-based blended school exchange programs: Based on the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s (AEEP). *Teacher Education Research*, 51(2), 215-230.
- Jung, M. H. (2010). The effects of inter-culture sensitivity on Korean society's multicultural receptivity. *E-Business Study*, 11(4), 291-310.
- Kang, H. M., & Kwak, S. H. (2012).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awareness and image reception of foreign athletes on social distanc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Sociology of Sport*, 25(2), 27-47.
- Kim, H. S. (2007). The effect of values o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91-104.
- Kim, G. S., & Moon, S. S. (201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2), 174-186.
- Kim, S. G., & Lee, C. J. (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5-20.
- Kim, S. H. (2004).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s the minority group in the Korean society. *Social Research*, 7, 169-206.
- Kim, S. H., Kim, S. W., & Han, J. E.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2(2), 115-140.
-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0, June). 2010 Annual report of immigration foreigners-related policy (Issue Brief No.1-1270000-000465-10). Seoul: Author.
- Lee, M. J., Choi, Y. J., & Choi, S. B. (2010). Multi-cultural society and social distance for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Survey Research*, 11(1), 63-85.
- Lim, D. K., & Kim, C. S. (2011).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1), 5-34.
- Lee, E. J., Kim, Y. K., & Lee, H. K. (2012). A study on the cultura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2), 179-188.
- Oh, K. S. (2011). Multicultural governance: Focused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1st Seminar Report on Multiculturalism and Regional Governanc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Studies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21-45.
- Oh, W. O. (2011).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7(4), 222-229.
- Park, G. T. (2010). *Who is minority: Minority and Korean society*. Seoul: Humanitasbook.
- Park, H. S., & Won, M. S. (2010). An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303-325.
- Park, S. H. (2011). *Influencing factors on social distance toward multicultural groups among students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ter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Park, Y. S. (2011).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Proceeding of 2011 KAM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535-539.

- Parrillo, V. N., & Donoghue, C. (2005).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42*, 257-271.
- Shin, G. S., Cho, K. C., Yang, S. H., Lee, O. C., Baek, H. C., Lee, G. Y., & Lee, S. J. (2011). Quality of life of North defect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2), 221-232.
- Yang, S. E.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37-60.
- Yoo, N. Y. (2009). Study on social distance of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general youth in Gimpo city. *Youth Culture Forum, 21*, 174-203.
- Yoon, S. W., & Kim, S. D.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36*(1), 91- 117.

##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a Metropolitan City\*

**Kang, Hae Young**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RINS, Gwangju)

**Han, Seok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yeong University, Gwangju)

**Purpose:** To survey the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mmigrants, foreign workers, Saeteomins, and foreign students) and compare them according to general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subjects were 409 students from two nursing schools at G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April 2012 to June 2012,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Scheffe test)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social distance were  $1.90 \pm 0.57$  (out of 4 points) and score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religion ( $t=3.095$ ,  $p=.002$ ), tourist experiences in foreign countries ( $t=-2.651$ ,  $p=.008$ ), and for Asian background of minority group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foreign friends ( $F=4.924$ ,  $p=.008$ ) and duration of friendships ( $F=3.913$ ,  $p=.021$ ). **Conclusion:** The level of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was lower than average but needs to be reduced. We suggest further studies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each minority group and the development of valid scales for social dista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ultural diversity, Social distance, Minority group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